

불교학계 봄기운 가득

불교학연구회 법인설립 추진 보조사상연 '간화선' 국제학술회의 계획

불교학자들이 긴 겨울잠을 깨고 봄맞이 준비로 활기를 띠고 있다. 대부분 학회가 2·3월에 첫 월례발표회를 시작하고, 운영회의 또는 이사회 등을 열어 한해의 계획을 확정짓기 때문이다. 특징적인 움직임으로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종표)의 사단법인화 추진, 보조사상연연구원(원장 법산)의 간화선 주제 국제학술회의, 한국불교학회(회장 이병래)의 불교영어표준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학회들도 다양한 주제의 학술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불교학연구회의 법인화 계획. 이 법인화 계획은 현실적인 고민에서 시작됐다. 학회의 경우 회장이 바뀌면 대개 회장의 소속 대학을 따라 학회 사무실과 전화번호가 바뀌는 것이 관행이다. 또 회장 개인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해 학회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학문적 자유와 역동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는 학회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인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회장 이종표 교수(전남대)는 "법인이 되면 학회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국제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특히 학회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돼 후원자 확보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돼 궁극적으로 재정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불교학연구회는 4월에 있을 정기총회에서 법인화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불교학회 가운데 법인 형태인 곳은 아직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조사상연연구원은 '간화선'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회의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간화선을 국제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장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은 "간화선이 동북아에서 어떻게 수용·전승되고 있는지 살피고, 세계적인 수행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도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불교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교영어표준화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불교학자들의 모임인 불교학회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아무래도 학술발표회. 올해 학술발표회는 여느 해보다도 현실에 밀착된 주제가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및 사회분열, 종교갈등 등의 사회현상은 물론 불교의 세계화라는 과제에 대해 불교학자들이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학술대회 주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불교학회는 4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춘계학술회의의 주제를 '한국불교 교육체계에 대한 재검토'로 정했다. 정보화·탈근대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 적합한 교육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승가교육과 관련하여는 권오민 경성대 교수가, 재가교육과 관

련해서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불교학연구회는 원로 사상에서 오늘날 한국사회 분열 극복의 지혜를 모색한다. 최근 원로사상을 주제로 열린 겨울워킹숍도 같은 맥락에 있다. 불교학연구회는 겨울워킹숍의 성과를 발전시켜 11월에 있을 추계학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3월 12일 월례발표회에서 박승훈 신부가 발표한 '초기불교와 하느님' 또한 종교간의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

또 3월 19일 한국선문화학회(회장 김용정)에서 발표될 '미국 현대불교의 동향'은 종교 스님(동국대 교수)이 미국에서 1년간 연구활동을 하며 체험한 미국의 불교를 소개하는 논문으로 세계 불교의 흐름을 읽는 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0월부터 '시스템과 상호의존성'을 제1기 주제로 5회에 걸쳐 '생태계'를 다뤘던 예코포럼(공동대표 고건·권태준·홍기삼)은 3월부터 제2기 주제를 '육량과 생명-생태적 인간 이해'로 정하고 '인간'을 고찰할 계획이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news.com

날짜	학회명	장소	발표자	논문명
2.26	보조사상연연구원	법연사	박성철(경주대 강사) 심효섭(중앙대 강사)	영산재의 종의적 사상체계 조선헌정 영산재의 성립과 전망
3.12	불교학연구회	청호불교문화회관	박건주(전남대 연구교수) 박승훈 신부(가톨릭대 강사)	근대 도신 선법연구에 대한 비판 초기불교와 하느님 초기불교의 수행(기제)
3.17	한국선학회	동국대	임성택(영국대 교수)	고려말 선사들의 유교관 미국의 현대불교의 동향
3.19	한국선문화학회	청호불교문화회관	이덕진(청원전문대 교수) 중호 스님(동국대 교수)	정신의학에서 본 육량(기제)
3.19	예코포럼	동국대	김중주(반포신경정신과 원장) 서유현(서울대 의과대 교수)	뇌생리학 관점에서 본 감정의 문제(기제)

동산문화재 관리는 이렇게...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 관리' 발간

동산문화재 관리 및 보존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한 매뉴얼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사진)를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작·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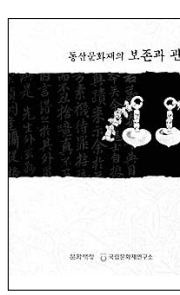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는 동산문화재를 병들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관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소개한 '일반관리' 장을 비롯해 '지류문화재',

'섬유·가죽류문화재', '목공예문화재', '금속문화재', '도자기문화재', '석조문화재' 등의 관리와 보존 방법 등 7장으로 구성됐다.

중학생 수준에 맞춰 쉬운 말로 쓰여진 이 책은 어려운 용어에 대한 풀이와 사진·그림이 함께 수록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각 장 뒤에는 참고문헌을 안내해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는 이들을 배려했고, 동산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도움이 될만한 박물관이나 보존과학기관 등의 연락처도 첨부했다.

문화재청은 이 책을 개인소장자와 각 기관 문화재담당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문화재청(www.ocp.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www.nri.go.kr) 홈페이지에 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통일신라때 선각불상 발견

경주 남산 가장 높은곳 위치



법외의 군의(袈衣)는 선명하나, 박락으로 인해 얼굴과 가슴부분은 윤곽이 분명치 않다.

해발 450m 경주 남산 정상 부근에서 통일신라시대 선각(線刻)마애불상 1위(位)가 새로 확인됐다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윤근일)가 2월 14일 밝혔다.

경주 남산의 금오산(해발 468m) 정상에서 동쪽인 지암곡과 토함산을 바라보고 있는 바위면에 새겨져 있는 이 선각마애불상은 오른손에는 구슬을 들고 왼손은 바로 편 모습을 하고 있다. 귀로 추정되는 부분과 목부분의 완만한 반원형 선각이 확인되나, 박락으로 얼굴과 가슴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

법의 양쪽은 날개처럼 벌어져 있으며 법의 끝 부분은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처리돼 있다.

또 법의 아래쪽인 군의(袈衣)는 치마를 입은 듯 부채꼴로 벌어지며 세로 방향으로 12개의 주름이 표현돼 있다. 남아있는 몸길이는 235cm, 어깨 너비는 60cm, 법의 상단 너비는 145cm다.

경주 남산을 답사하던 시민 문종철 씨가 바위면의 선을 발견하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알림에 따라 이 불상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연구소 측은 "경주 남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양식적으로 가장 오래된 표현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경주 남산에 소재한 여러 불상들에 대한 비교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이 불상의 이름을 계속이름을 따라 '경주 남산 오산계 지암곡 제4사지 선각마애불상'으로 명명했다.

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

아름다움과 이상

'아름답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자. 우리나라 고어에서 '아름답다'는 '나답다'의 뜻이다. 나와 비슷하면 좋다는 뜻이 변화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름답다는 뜻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아름'이 왜 나를 나타내는가를 언어학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의 '한 아름'이 팔을 벌려서 들어오는 거리만큼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아마도 나의 소유와 관련된 말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나의 소유로 들어올 수 있는 만큼'이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된다는 언어의 연원을 생각해보면, '나' 혹은 '나의 소유'가 언어에까지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생물학자는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생물의

부 현상이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할 때 의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남의 장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인식 능력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자기인식 기능 역시 몸 세포 중 핵의 DNA에 저장되어 있고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 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줄기 세포 배양기술 역시 바로 남의 것이 아닌 나의 장기를 쉬운 방법으로 기르려하는 노력이다.

과연 '나'라는 느낌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뇌 과학자들은 나의 한 아름 안에 들어오는 물건을 보았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머리 꼭대기 부분인 두정엽 약간 뒷부분에 위치하는 정위영역이 '나'라는 느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나'라는 인식과 느낌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상의 극복은 근본 초월의 위대한 공덕

특징이라고 믿어지는 자기 변식 기능을 무생물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무생물인 다이아몬드도 자기의 결정 모양을 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감기나 사스의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는 분자인 바이러스 또한 과연 생물이지만, 무생물인지 정의하기가 힘들다.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나와 남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생물은 나의 몸에 다른 물질이 들어오면 급방 알아차려서 다른 물질을 무력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상처가 났을 때, 염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외부 병원균을 알아채고 대항하는 물질들을 내놓는 생명의 요동한 자기인식 기능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기능이 없다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다. 역기능도 또한 있는데, 이것이 장기 거

이와 같이 '나'라는 느낌은 크케는 뇌로부터, 작게는 세포 분자들의 자기인식 기능까지 뿌리 깊게 존재하는 무엇임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한국 선불교의 이론을 제공하는 경전으로 광범위하게 읽히는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의 핵심이 적혀있는 3장 '대승정분'을 보면, 보살이 '아상'을 가지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것(보시)이야 말고 가장 큰 복임을 가르치고 있다. 얼핏 보면 심겨운 가르침과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화된 '나'에 대한 느낌의 뿌리를 생각하면, 아상을 버리고 남에게 보시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속제인가를 상상할 수 있다. 아상을 극복한 복덕의 크기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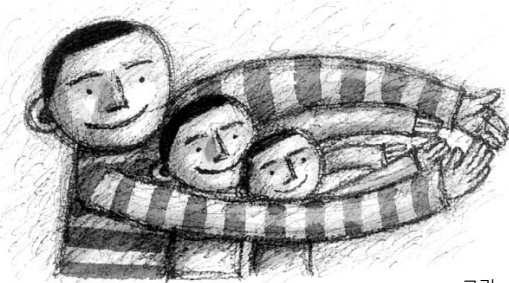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2005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취의성보호하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의식·범음(범패)을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5년도 전기(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범패·요장 및 작법 등 경의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은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해산 -

1 모집학과

학과	교육내용	모집인원	비고
기본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조·석예불, 불공의식, 시식	20명	6개월
전통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및 천도재의식(점안 및 제공의식)	20명	1년
연구과정	요장,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 찾아오시는 길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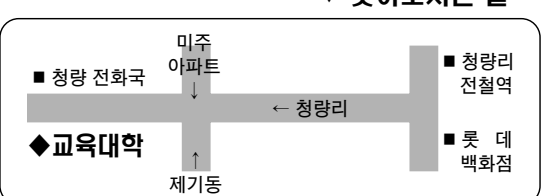
5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2) 수계증명서 사본
-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5년 1월 17일 ~ 2월 23일

▷ 개강 : 2005년 2월 24일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이·취임 법회

초대합니다

본 재단의 제 7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금강선원장 해거스님의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무투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05년 3월 6일(일요일) 오전 10:30
- ◆ 장소 : 자광사 대웅전
- ◆ 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49 자광사
TEL 042)822-9220(대) FAX 042)822-8304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전창열 합장